

KBO 별들의 '엑소더스' 재현?

(많은 사람이 동시에 특정 장소로 떠나는 상황)

2013년 류현진 시작으로 美 진출 활기 내년 간판선수 포스팅 가능성 커 관심 美 언론, 김하성 등 매력적 카드로 소개

프로선수라면 누구나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자신을 그린다. 개인은 물론 한국야구에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KBO리그 차원에서 보면 간판급 선수들의 대거 이탈은 스타 부재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올 겨울, 어쩌면 수년 전의 '스타 엑소더스'가 재현될 수도 있다.

2013년 류현진(당시 LA 다저스)이 나타나기 전까지 KBO리그 출신 선수가 메이저리그(ML)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야구의 꼭대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류현진의 성공으로 현지에서도 KBO리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2014년 윤석민(볼티모어 오리올스), 2015년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2016년 김현수(볼티모어),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ML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종료 후에도 2010년대 중반의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가 되는 양현종(32·KIA 타이거즈)과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 자격을 얻는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 나성범(31·NC 다이노스)이 주인공들이다. 여기에 지난해 포스팅으로 해외 진출을 타진했던 김재환(32·두산 베어스)처럼 깜짝 도전을 선언하는 준척급 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량부터 이름값, 스타성 모두 한국야구 최고 수준이다. '대투수' 양현종은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리그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나성범은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 해마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을 몰고 다녔다. 김하성도 팀 선배였던 강정호의 뒤를 따라 리그 최고 유격수 반열에 올랐다.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김하성이 올 시즌 포스팅시스템에 뛰어들 가



올 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KIA 양현종, 키움 김하성, NC 나성범(왼쪽부터)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한다. 이들이 메이저리그 무대에 설 경우, KBO리그는 최고의 스타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능성이 높다. 모든 팀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이가 젊어 매력적"이라고 칭찬했다. MLB닷컴은 일주일 전 "김하성은 강정호보다 컨택트와 수비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이은 극한이다.

물론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해외 진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NC와 키움은 지금 포스트시즌의 시작점을 정하기 위해 매 경기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가을야구 가능성이 희박해진 KIA지만 양현종도 개인의 꿈은 팀의 정규시즌을 모두 마친 뒤 언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셋 모두 더 큰 무대에서 뛰는 것이 오랜 소망이라는 사실까지는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 후 김광현(세인트루이스)에 이어 리그 투타 중심 선수들의 연이은 이탈이 벌어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포스트시즌, 11월 1일 플레이블!

플레이오프부터 고척돔서만 경기 KS 7차전 갈 경우 11월25일 종료

올해 KBO리그 포스트시즌(PS)이 11월 1일 막을 올린다.

KBO는 20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년 제8차 실행위원회(단장회의)를 열고 올해 PS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PS는 정규시즌 종료(10월 30일) 이틀 뒤인 11월 1일 개막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WC) 1차전(최대 2경기)을 시작으로 준플레이오프(준PO·11월 4일~)는 3전2승제, PO(11월 9일~)는 5전3승제, 한국시리즈(KS·11월 17일~)는 7전4승제로 치러진다. KS가 7차전까지 이어질 경우 PS는 11월 25일 막을 내린다.

KBO는 4월 7일 실행위에서 11월 15일 이후 진행되는 PS 경기는 모두 고척스카이돔에서 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립경기 기준인 11월 15일이 포함된 PO 1차전부터 고척돔에서 진행된다.

또 실행위는 PS에 한해 심판 재량 비디오판독을 도입키로 했다. 심판 재량 비디오판독은 PS 경기에서 팀의 신청과 별도로 8회 이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횡수에 제한 없이 심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또 PS 엔트리에 등록된 30명의 선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증상 의심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 음성 판정을 받거나 필요한 격리를 마칠 때까지 예비 엔트리 내에서 대체 선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팀은 엔트리 제출 시 예비엔트리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PS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우콜드게임이 아닌 서스펜디드게임 규정을 적용한다. 리그규정의 P S 서스펜디드게임 규정에 따라 다음날 동일 대진일 경우 다음날 경기 이전, 다음날이 이동일인 경우 이동일, 최종 경기일 경우 다음날 또는 이동일에 거행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코로나확진자 932회 34억 1등 당첨! 1등 당첨 비결은?

로또플레이가 또 다시 해냈습니다! (281번째 1등) 가입문의 1668-1645



로또플레이 오정식 대표

932회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로또플레이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다. 지난 10월 10일 추첨한 932회 추첨방송에서 34억 로또 1등 당첨금의 주인공은 총 7명, 이 중 1등의 행운을 안게 된 용인에 사는 문씨(남성/38세)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문씨는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인하여 지난 9월1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하는 날 로또 분석 전문기업 '로또플레이'를 통해 입원 기간 중 부여받은 예상번호로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로또 932회 추첨일인 10월10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로또 추첨 방송을 보던 중 심장이 멎을 뻔했다는 문씨. 자신이 구입한 로또복권의 두 번째 줄에 있는 6개의 번호가 모두 맞았던 것이다. 어안이 병병해진 그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분명 1등이 틀림없음을 확인했다. 33억 9천 만원의 1등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 문씨는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완치가 되어 퇴원하는 날 코로나가 이런 큰 선물을 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말했다.

한편 문씨에게 로또 1등 당첨의 기쁨을 준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가 로또플레이로 알려지면서 사이트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12년의 로또 분석 노하우 및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인터넷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분석 전문 기업 '로또플레이(가입문의:1668-1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 씨(47세/여성) 역시 골드회



로또 932회 1등복권 (34억)

원으로 가입한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가 되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김 씨(50대/여성)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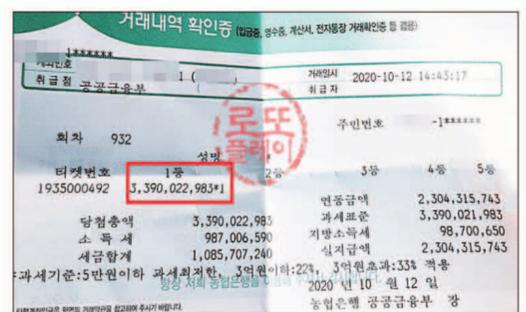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8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81회, 2등 1,450회, 3등 49,499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수령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12년의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8-1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LOTTOPLAY.CO.KR

가입문의: 1668-1645

당첨보장제 출시! 가입기간 3년 동안 3등 안되면 가입비 전액 환불!



문중혁(30대/남성) 골드회원의 34억 수령 영수증